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2), 293~300, 2005. 8.

라틴아메리카 지역지리 수업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권동희*

Multimedia Contents Development for Regional Geography of Latin America

Dong-Hi Kwon*

요약 : 최근 각급 학교에서는 멀티미디어 수업이 강조되고 있고 지리 수업 특히 지역지리 수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수업 방법론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관심도에 비해 성공적인 멀티미디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멀티미디어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선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수업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지리 강의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지리 강의를 자연지리, 인문지리로 나누어 구조화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사진으로 국한하였다. 연구는 현장답사를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 240매의 사진을 획득, 이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자료 90매를 선정하였다(표 1). 이중 자연지리 자료는 34매, 인문지리 자료는 56매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나 그 매수 등은 수업 내용과 분량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전문학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술지의 사이버 출판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로서 이러한 연구 성과물들은 보다 손쉽게 현장에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라틴 아메리카, 지역지리, 자연지리, 인문지리,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진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velop multimedia contents useful for regional geography of Anglo America.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lassify lectures for content building. In case of lectures on regional geography, the contents are largely classified, Physical geography and Human geography. Methods of classifying multimedia content types are many and various. Photos are effective in dealing with specific subjects. Photos have been obtained through field work. The field investigation gave an opportunity to obtain 240 sheets of slide photos. Of them, this study selected 90 sheets of photo that are regarded as effective in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the specific subjects and classified them by content(Table 1). This study only suggests a methodology, and details as well as the number of sheets of multimedia content will vary with contents, quantities and targets of lectures.

Key words : Latin America, regional geography, physical geography, human geography, multinedia contents, photo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kwon55@dgu.ac.kr

I. 서 론

최근 각급 학교에서는 멀티미디어 수업이 강조되고 있고 교육 관계자들은 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멀티미디어 수업은 지리 수업 특히 지역지리 수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업 방법론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관심도에 비해 성공적인 멀티미디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원인 중 하나는 멀티미디어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선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지리 수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에 이은 세번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사진자료에 국한하였다. 사진은 생생한 현장감을 필요로 하는 지역연구에 있어서 특히 주요한 콘텐츠이다. 강의 자료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크게 구분하여 각각의 사진자료를 제시하였다.

연구는 현지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현지 답사는 2002년 11월 14일~30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다. 답사시 국가간 이동은 대부분 항공교통을, 지역에서의 이동은 버스를 이용하였다. 답사는 멕시코→칠레→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순으로 총 16,000km에 걸쳐 진행되었다.

답사시 카메라는 니콘 F90X에 35~70mm(2.8D) 줌 렌즈를 기본으로 장착하였고, 24mm(2.8D) 광각 렌즈를 휴대하였다. 필름은 코닥 엘리트 100 컬러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하였다. 17일간의 답사에서 36컷 필름 45롤을 촬영하였다. 사진 내용설명은 문헌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참고하였다. 문헌은 답사시 현지에서 구입한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II. 지역 개관

1. 지리적 위치와 규모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리오그란데(Rio Grande)강 이남의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제도, 남아메리카 등이 포함된다.

지리적으로는 북위 32°~남위 56°, 서경 34°~118° 사이에 위치한다. 브라질 동쪽 해안에서 아프리카 대륙 서안까지는 약 2,500km밖에 되지 않아 여러면에서 아프리카 대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적으로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들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남부, 칠레 등은 유럽, 브라질 북동부는 아프리카와 관계가 더 깊다. 총 면적은 2,053만5,000km^{2}로서 이는 세계 육지면적의 15.1%에 해당된다.

2. 자연지리

라틴 아메리카의 자연은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사하여, 지형의 스케일이 크며 그 분포가 단조롭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는 동부와 서부의 산지, 중앙의 고원지대로 구분되며, 남아메리카는 서부의 높고 험준한 산지, 동부의 고원성 · 고기성(古期性) 고지, 중앙부의 광대한 저지 등 3개 지형구로 구분된다.

남아메리카 서부 산지에 해당하는 안데스 산맥은 신생대 제3기 습곡산지로서 남아메리카의 척추 산맥이다. 남북 길이 9,000km, 동서간 최대폭 800km로서 5,000m 이상의 고봉들이 이어져 있는 세계 최대의 산맥이다. 곳곳에 산간분지와 산간고원이 존재한다.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로서 화산과 지진이 빈번하다.

남아메리카 동부 고원지대는 곤드와나 대륙의 일부로서 안정지괴에 해당된다. 기아나 고지, 브라질 고원, 파타고니아 대지 등이 이에 속한다. 해발고도는 600~1,000m 정도이다. 브라질 고원은 융기 준평원 위에 용암(현무암, 휘록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파랑상의 용암대지이다. 풍화토양인 테라록사는 커피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

남아메리카 중앙 저지는 대부분 구조평야이다. 오리노코 저지, 아마존 저지, 그란차코 저지, 팜파스 평원, 메소포타미아 평원 등이 이에 속하다. 이 곳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기후와 교통이 불편하여 팜파스 평원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늦은 상태이다.

80%가 열대기후지역으로서 위도보다는 고도에 의한 지역적 기후차이가 크다. 특히 멕시코 고원과 안데스 산지에서는 고도에 따른 기후 변화가 주민생활(인구분포 및 토지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3. 인문지리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 지역은 16세기 이후~19세기 초에 걸쳐 약 3세기 동안 에스파냐와 포루투갈 등 라틴 국가의 식민지가 되어, 현재까지도 언어, 종교, 문화 및 생활양식 면에서 라틴문화의 특색이 강하게 남아 있다. 멕시코를 비롯한 19개국이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며 브라질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를 합치면 20개국이 라틴계 언어를 공용하고 있다. 주민의 80% 이상이 라틴계 가톨릭교를 믿고 있는 나라가 26개국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아메리카 고원지대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지를 중심으로 마야, 아스테크, 잉카 등 인디오 문화가 번성하였으나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들 고유 문화는 사라지고 말았다. 1836년 멕시코 독립을 계기로, 식민지 통치시대는 점차 무너지고 신생독립국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정치적 기반이 약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II. 콘텐츠 개발

답사를 통해 모두 240매의 현장사진을 획득하였고 이들중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90매를 선정하여 구조화 하였다(표 1). 지면의 제약상 본문에서는 90매의 사진중 20매의 경관사진을 제시하였다(사진 1-20). 지도 1은 연구지역으로서 지도에 표시된 숫자는 본문에서 제시한 20매의 사진 번호이다.

지도 1. 연구지역

1. 자연지리 콘텐츠

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중 자연지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관 사진은 34매이다(표 1).

사진 1은 카리브 해 연안의 휴양도시 깐꾼 앞바다 경관이다. 깐꾼은 마야어로 '방울뱀' 이라는 뜻으로, 1970년대 개발된 휴양도시이다. 평균 섭씨 23~30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간간히 열대 스콜이 더위를 식혀주는 세계적인 휴양지이다. 이도시의 도로는 카리브 해연안의 사주를 이용하여 건설되었다. 사진 2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 이슬라 무헤레스의 퇴적암에서 관찰되는 사층리이다.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노두가 된다. 사진 3은 사진 2의 사암층이 극단적으로 화학적 풍화가 진행된 노두이다. 사진 4는 카리브해의 기후적 특징인 스콜 구름이다. 몇시간 간격으로 찾아오는 스콜구름과 소나기는 카리브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지리적 경험을 하게 한다.

사진 5는 안데스 산지 해발 3,100m에 발달한 빙하호인 '잉카호' 이다. 이 사진은 한여름인 11월 18일 촬영한 것으로 당시 기온은 섭씨 10도가 안되었다. 사진 6은 사진 5의 산정상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융설하천이다. 이 물은 해안 건조지역의 주요한 생활용수원으로 이용된다. 사진 7은 지중해성 기후 경관이다. 앞쪽으로는 대표적 작물인 포도밭이 있고 뒤쪽으로는 한여름에 눈을 이고 있는 안데스 산맥이 보인다.

사진 8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안에 우뚝 서있는 슈가롭(Sugarloaf)이다. 해발 394m의 순수한 화강암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슈가롭은, 세계 자연지리 교과서에서 '보른하르트' 를 설명할 때 좋은 예로 제시하고 있다. 포루투갈 어로 빵드아수카(Pao de Acucar) 즉 '빵산' 이라고 한다. 인디오의 성지(제단)였으며 포루투갈이 프랑스 함대 공격에 대비하여 관측소를 설치했던 곳이기도 하다. 스페인-스위스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케이블카를 설치(1909년 착공-1912년 완공),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영화 '007 Moon Lake' 도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사진 9는 사진 8의 슈가롭에서 바라본 해발 710m의 코르코바도 언덕이다. 슈가롭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화강암 돔으로서 브라질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예수

표 1. 콘텐츠일람

구 분	주 제	사 진	구 분	주 제	사 진	구 분	주 제	사 진
자연 지리	1. 멕시코 채석장		자연 지리	31. 자유곡류		인문 지리	27. 리마 세발 택시	
	2. 엘마게이			32. 구하도			28. 인디오 원주민	
	3. 카리브해	1		33. 열대림			29. 산토도밍고 성당	
	4. 사층리	2		34. 아마존강			30. 삭사이와만 유적	
	5. 사암풍화1	3	인문 지리	1. 소깔로광장			31. 유적발굴지	
	6. 사암풍화2			2. 멕시코시티조형	14		32. 인디오와 알파카	
	7. 번개			3. 과달루뻬성당			33. 뻬삭 마을	
	8. 스콜구름	4		4. 성모 과달루뻬			34. 잉카랜드	
	9. 잉카호	5		5. 산 후안디오			35. 인디오 상인	
	10. 융설하천	6		6. 흑요석가공	15		36. 우루밤바 마을	18
	11. 산티아고			7. 태양의 신전			37. 우루밤바 가옥	
	12. 지중해성기후	7		8. 달의 신전			38. 욜란따이땀보	
	13. 안데스산록			9. 떼오띠와깐	16		39. 아우토바곤	
	14. 열대정글			10. 치첸이사			40. 옥수수 판매상	
	15. 리오해안			11. 전사의 신전			41. 하이람빙검 비	
	16. 슈가롭	8		12. 잉카호 레저타운			42. 마츄피츄	19
	17. 코르코바도언덕	9		13. 리우데자네이루			43. 계단식 경작	
	18. 3국접경지대			14. 코파카바나해안			44. 경작지	
	19. 마꾸꼬사파리			15. 등산열차			45. 수로식 발전소	
	20. 이과수폭포1	10		16. 아프트식 철도			46. 그림지도	
	21. 이과수폭포2			17. 예수재림상			47. 꾸쓰꼬 광장	
	22. 이과수강			18. 카니발 거리			48. 인디오 상인	
	23. 안데스			19. 이과수 시			49. 꾸쓰꼬 뒷골목	
	24. 리마강	11		20. 알콜 판매소			50. 꾸쓰꼬 거리	
	25. 꾸쓰꼬			21. 이따이쁘댐	17		51. 트럭개조 버스	
	26. 알파카	12		22. 국경지대			52. 이발소 풍경	
	27. 고원초지			23. 펑크방지시설			53. 열대도시 풍경	
	28. 소금광산			24. 카미니토			54. 열대고상식가옥	20
	29. 우루밤바계곡	13		25. 탱고			55. 리마 건축양식	
	30. 마추피츄언덕			26. 리아 추엘로			56. 리마 빈민촌	

사진 1. 카리브 해(멕시코 깐꾼)

사진 2. 사층리(멕시코 이슬라 무헤레스 섬)

사진 3. 사암의 화학적풍화 (멕시코 이슬라 무헤레스 섬)

사진 4. 열대기후의 상징 스콜 구름 (멕시코 깐꾼)

사진 5. 빙하호 잉카호(칠레 안데스)

사진 6. 융설하천(칠레 안데스)

사진 7. 지중해성 기후 경관 (칠레 안데스)

사진 8. 보른하르트 슈가롭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사진 9. 보른하르트 코르코바도 언덕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재림상' 이 이곳 정상에 세워져 있다. 화강암 돔 지형은 급경사이므로 우리가 '아프트식' 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등산철도를 이용하여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사진 10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을 이루는 이과수 강 상류에 발달한 이과수 폭포이다.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북아메리카의 나이아가라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알려진 곳이다. 원주민 언어인 '과라니 어' 에서 '큰 물' 이라는 뜻을 갖는 이과수 폭포는 275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합쳐진 일종의 폭포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1은 페루의 리마 시내를 관통하는 리마 강으로 안데스의 눈녹은 물이 흐르는 융설하천이다. 이는 사진 6의 융설하천이 안데스 서사면을 따라 흘러내려온 것으로, 건조 지대인 이곳에서는 주요한 생활용수원이 된다.

사진 12는 안데스 주민들의 주요 가축인 알파카이다. 보통 야생의 것은 비꾸냐라고 하고 가축화된 것을 알파카라고 부른다. 털의 품질은 비꾸냐가 월등하다. 알파카와 야마를 같이 쓰고 있는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야마보다 털이 조금더 많은 것이 알파카이다.

사진 13은 안데스 동부 사면, 해발 2,800m에 자리한 우루밤바 협곡이다. 이 사진은 잉카문명의 유적지 마츄피츄(사진 19)에 올라 촬영한 것으로, 마츄피츄가 스페인 군대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이러한 험준한 지형적 특징 때문이었다. 이곳은 잉카문명의 수도였던 꾸쓰꼬에서도 기차를 타고 우루밤바 강을 따라 3시간 30분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안데스 중에서도 오지이다.

사진 10. 세계최대 폭포 이과수 폭포 (브라질 이과수강)

사진 11. 융설하천 리마강(페루 리마)

사진 12. 안데스의 대표적 가축 알파카 (페루 우루밤바)

2. 인문지리 콘텐츠

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중 인문지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관 사진은 56매이다(표 1).

사진 14는 멕시코 시티 소깔로 광장에 있는 도시조형물이다. 원래 분수대로 이용되는 것이나 청소를 위해 물을 뺀 상태이다. 호수를 매립하여 건설한 멕시코 시티의 지리적특징을 잘 보여주는 경관이다. 세계 3대 기적의 성당으로 알려진 멕시코의 과달루뻬 성당은 지반침하로 붕괴가 진행되어 지속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멕시코 시티의 지형적 기반과 무관하지 않다.

사진 15는 멕시코 시티 근교에서 흑요석 가공에 열중하고 있는 원주민들이다. 흑요석은 유리질 용암으로서 이 일대에서 화산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상품으로서 흑요석을 가공해 왔다. 최근에는 많은 공정이 기계화 되었다.

사진 16은 멕시코 고대 문명의 하나인 떼오띠와깐 유적지이다. '신들의 장소'를 의미하는 지명으로 해발 2,000m 중앙고원에 위치해 있다. 구릉지대로 둘러싸인 '반사막'의 협곡으로서 콜롬부스 대륙발견 이전 번성했던 문명도시 중 최대규모의 도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요석 가공(사진 15)을 즐긴 것으로 생각되는 민족에 의해 BC 200년경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BC 5년 당시에는 20만 인구 정도의 규모로 번성했으나 AD 680년경 홀연히 사라진 수수께끼의 고대문명도시이다. 학자들 중에는 기후 환경변화로 옥수수재배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옥수수 재배지역을 찾아 이동한 것으로도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곳에는 제단으로 이용된 두개의 큰 신전이 있는데, 사진 멀리 왼쪽에 보이는 것이 그중 하나인 태양의 신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달의 신전으로 불리는 것으로 필자가 사진을 촬영한 장소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분묘이지만 이곳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진 17은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을 이루는 파라나 강 상류에 건설된 이따이쁘 댐이다. 폭 8km, 높이 196m로 현재까지는 세계 최대 발전량(1,250만kw/h)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 삼협댐이 완공되면 1위자리를 물려주어야 한다. 이 댐 건설에 쓰인 철근은 파리 에펠탑을 380개 세울수 있는 분량이고 콘크리트는 세계 최대 축구장으로 알려진 브라질 마라까나 축구장 210개를 건설할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기반암은 현무암인데, 댐 건설에 사용된 현무암은, 사진8의 슈가롭 규모의 바위산 2개 분량에 해당된다고

사진 13. 우루밤바 협곡(페루 안데스)

사진 14. 멕시코 시티 조형물 (멕시코 소깔로 광장)

사진 15. 흑요석 가공(멕시코 시티 교외)

사진 16. 고대문명 떼오띠와깐 유적 (멕시코)

사진 17. 세계최대 규모의 이따이쁘 댐 (브라질 파라나 강)

사진 18. 안데스 고산지대의 우루밤바 마을(페루 안데스)

사진 19. 잉카 유적 마츄피츄(페루 안데스)

사진 20. 열대 고상식 가옥 (페루 푸에르토 말도나도)

한다. 이 댐의 건설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환경변화의 문제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이 인근의 이과수 시인데, 이 시는 댐 건설 이후 평균 습도가 85%나 높아지고 바람도 약화되어 심각한 '열대야' 도시가 되었다.

사진 18은 안데스 동사면의 우루밤바 강변에 발달한 우루밤바 마을이다. 흙벽돌집이 인상적이며 마을 뒷쪽으로는 안데스의 상징인 급경사의 계단식 경작지가 보인다. 일종의 곡저평야에 발달한 마을로서 옥수수나 감자를 경작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인디오 원주민들 중에는 관광객들에게 삶은 옥수수를 가지고 나와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진 19는 해발 2,450m에 자리한 안데스 잉카문명의 유적지 마츄피츄(Machu Picchu)이다. '잃어버린 공중의 도시' 라는 별칭에 걸맞게, 고산도시(3,200m) 꾸쓰꼬로부터 기차나 버스로 3~4시간 거리에 있는, 우루밤바 협곡(사진 13) 산정부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 때문에 1532년 스페인 침입당시에도 발견되지 않아 그 원형을 거의 유지한채 오랜기간동안 묻혀 있다가, 1911년 우연히 미국의 역사학자 하이람 빙검에 의해 발견되었다. 도시 면적은 5평방km에 지나지 않으나 한창 번성했을 당시에는 약 1만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20은 아마존 강 지류의 하나인 마드레다 디오스 강변의 열대고상식 가옥이다. 사진의 가옥은 필자가 묵었던 호텔의 객실이다. 친환경적인 관광시설인 셈이다. 지금도 아마존 강 하안을 따라 원주민들은 아직 이러한 가옥에서 실제 생활을 하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라틴 아메리카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지역지리 강의에 유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업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① 자연지리, ② 인문지리로 구분하여 구조화하였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유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진자료로 국한하였다. 현장답사를 통해 모두 240매의 사진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이중 실제 수업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90매의 사진을 선정하여 자료화하였다(표 1). 이중 자연지리 자료는 34매, 인문지리 자료는 56매이다. 이들 자료는 상황에 따라 1시간~2시간 정도의 수업 분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나 그 매수 등은 강의 내용과 분량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참고문헌

권동희, 2003, 사이버 강의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중 · 남부 아프리카 지역지리를 중심으로-, 사진지리, 13, 73-90.

권동희, 2004, 사이버 강의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지리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4(2), 37-46.

정승일 외, 2003, 국제화시대의 세계지리, 대구대학교 출판부.

정지은, 2002, 라틴 문화 여행, 일빛.

한비야, 2002, 바람의 딸 걸어서 세바퀴반 - 중앙아메리카 · 알래스카, 도설출판 금토.

Aventura · Brasileira, 2000, IGUACU.

Beppe Ceccato, 1995, Past and Present BRAZIL , DISAL S.A.

Bonechi, 1996, カンクーン.
Bonechi, 2001, 古代 メキシコ.
Collin, 1999, South America 1 : 8,000,000.
Cusco-Peru, 2002, Cusco and The Sacred Aalley Of the Incas.
Lucien Finkelstein · Mariza Campos da Paz, 2000, Rio-de Janeiro naif, Edicoes MIAN Museu Internacional de Arte Naif do Brasil.
Universal Image Enterprise, 1993, マヤ 歷史圖說 -遺跡の現狀とその復元圖.

최초투고일 : 2005. 07. 20.
최종접수일 : 2005. 08. 08.

교신 : 권동희,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26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kwon55@dgu.ac.kr, 02-2260-3405)
Correspondence : Dong-Hi Kwon, kwon55@dgu.ac.kr